

『제인 에어』와 『테스』에 나타난 여성인물들의 관계와 정체성 형성

정 소 하

1.

외로운 고아 소녀에게도, 가난한 농촌 대가족의 만딸에게도 사회는 친절하지 않다. 『제인 에어』(*Jane Eyre*)와 『더버빌 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에서 제인과 테스는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인은 게이츠헤드(Gateshead), 로우드(Lowood), 쏘필드(Thornfield), 그리고 무어하우스(Moor House)까지 그녀를 따라오는 억압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내적 투쟁을 해야 하고, 테스는 적나라하게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남성적 시선과 언어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장면들을 통해 이 두 여성은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이 강조된다. 제인 에어는 자신의 결혼식 날 로체스터(Rochester)에게 숨겨진 아내가 있음을 알게 된 후, 세상에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나만은 나를 염려해”(I care for myself 317)라 자신을 다잡으며 로체스터를 떠난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강조될 만하지만, 그에 앞서 세상에 누가 나를 걱정하겠느냐는 자문(“Who in the world cares for you?”)은 제인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20여년을 보낸 제인이지만, 막상 그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오는 깨달음은 결국 나를 지키고 염려할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테스도 마찬가지이다. 에인젤(Angel Clare)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테스는 부모마저도 자신의 진실을 의심한다는 처절한 깨달음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조금 의심한다면, 이웃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의심하겠는가?”(if her father doubted her a little, would not neighbours and acquaintance doubt her much? 252)라고 마음 아파하며 매정한 현실로 발걸음을 돌린다. 그녀들의 삶의 걸음은 이처럼 그녀들 “홀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홀로 맞서는 모습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녀들이 정작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과

그 정체성의 형성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다.

제인과 테스에게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때,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해되는가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녀들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는 남성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녀들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려 한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여성들이다. 사회 속의 한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 속의 ‘다른 여성들’이라는 거울—그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비평들에서 제인과 테스는 다른 여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주로 평가되었다. 미키(Helena Michie)는 제인 에어에 대해서 “제인이 여러 다른 여성들과의 대립(opposition)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해 왔다”며 “그녀의 여정은 여러 여성 인물들의 전시(gallery of female figures)를 향한 거부와 적대감에 의해서 촉진된다”(403)라고 하였으며, 테스의 경우에도 리자루(Liza-Lu)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가 “경쟁”(rivalry, competition)의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420). 정말로 제인과 테스가 남성 인물을 사이에 두고 다른 여성들에 대해 경쟁심과 적대감만 느낀다면, 여성 독자들이 두 여성을 좋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도 이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정체성이 다른 이들과의 “대립”만을 이루며 형성된다면, 그들은 정말로 “나”만을 중시하는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인과 테스는 다른 여성들에게 표면적인 경쟁심을 넘어서는 이해와 공감, 연민을 느끼며 테스는 그들이 지고 가는 짐에 대한 공동 부담까지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압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나”의 보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보존을 위해 다른 여성들의 억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는 정체성 속에 다른 여성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이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인과 테스는 여러 여성인물상들이 전시된 미술관을 돌면서 그들을 단순한 그림이 아닌, 자신과 같은 살아있는 여성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다. 이것은 여성으로서 제인과 테스가 보이는 남성 인물들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위협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자기보존의 의지에는 그 보존의 의미와 방식을 깨닫게 해주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고, 제인과 테스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를 바란다.

다른 여성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감이나 동일시, 혹은 애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제인 에어』에서 제인이 직접적인 공감을 보이거나 자신

과의 친연성을 강하게 느끼는 여성은 헬렌(Helen Burns)이나 리버스(Rivers) 자매 정도이다. 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버사(Bertha)나 잉그램 양(Blanche Ingram)의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도 거의 없을뿐더러 제인 스스로도 자신과 대비되는 존재로 느끼고 있음이 더 잘 드러난다. 테스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가고, 다른 목장 동료들과의 공동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깊숙한 이야기를 꺼내놓거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즉, 강한 애정이나 동질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접 말하거나 나누지 않아도 알아채는 무엇, 상대방이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나 이해가 이들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한다. 이들이 다른 여성들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도 그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 서로 간의 차이점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구성해나가는 과정과 동시에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발휘되는 이해가 있는 것이다.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남성들 간의 가부장성 때문에 갈등해야 한다면, 여성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경험이나 인식이 존재한다. 여성들의 관계에는 남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의 관계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제인과 테스의 정체성과 다른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인과 테스가 다른 여성들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남성과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여성인물들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 이해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성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인식은 단순히 우정, 질투, 적대감, 공감 등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며, 그것이 주인공들의 의식 속에서 명확히 인식되고 설명되지 못하더라도 텍스트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다. 제인과 테스는 배타적인 “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거나 고정불변의 정체성을 지닌 것도 아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비슷한 다른 여성들이 이들의 정체성과 공명하면서 배타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은 “나”가 구성된다.

2.

『제인 에어』와 『더버빌 가의 테스』는 모두 남들과는 뭔가 다른 여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소설을 시작한다. 주인공 제인이 소설의 1인칭 화자인 『제인 에어』의 경우, 소설 초반에는 리드 가족 내에서 ‘왕따’ 당하는 제인의 모습이 그려

진다. 제인은 리드 부인(Mrs. Reeds)을 “그들의 엄마”(their mama 7)로, 그녀의 자식들을 “그녀의 귀염둥이들”(her darlings 7)이라고 묘사하는데, 자신은 결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적음으로써 그들의 언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또한 애정을 담고 있는 이 표현들은 그런 애정을 사실은 갈망하고 있는 제인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 창가에 앉아 커튼을 친 “이중의 은둔”(double retirement 8)을 통해서만 안정을 느끼는 제인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누군가 침투해오는 것이다. 제인은 이미 물질적으로는 의존을 피할 수 없고, 어려서부터 수없이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주입받아왔기에 자신이 그런 의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녀가 게이즈헤드에 머무르는 한, 해방은 너무도 쉽게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제인이 찾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정신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제인은 자신을 멀리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리드 부인에게 “그들이 나와 어울리기에 적당치 않은 거예요”(They are not fit to associate with me 27)라며 받아치고 자신을 기만적이라고 하는 그녀에게 “당신이 기만적이에요!”(You are deceitful 37)라 반박한다. 제인은 이렇게 반항하면서도 마음으론 편할 수가 없는데, 타인과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정신적인 독립을 주장하고픈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라온 제인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은 인형을 통해서만 해소된다. 리드부인에 대한 저항이 그들 간의 애정을 더욱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턴(Terry Eagleton)은 제인이 이렇게 리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동시에 그녀에게 자유를 준다고 설명하는데(25), 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제인이 이런 자유를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제인은 타인에 대한 어두운 분노와 거친 말들보다 기꺼이 더 나은 감정과 행동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38), 남들의 적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다른 방법은 그녀에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질적인 존재”(a heterogeneous thing 15)인 제인은 스스로 남들과 다른, 남들보다 더 우월한 자신을 주장함으로써 그 소외를 견딜 수 있었고, 나와 남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이미 남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뜻이다. 『제인 에어』는 이러한 제인의 자기 주장으로 가득한 소설이다. 셔틀워스(Sally Shuttleworth)도 “제인은 포함되기를 원하는 아웃사이더로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녀의 자기정의와 자기가치는 그녀의 소외된 위치와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한다(153). 그렇지만 이렇게 남과의 대립 속에서만 형성된 그녀의 자아는 거울 속에 비친 흐릿

한 유령 같은 자상으로 나타날 뿐, 결코 견고하지도, 확실하지도, 긍정적이지도 못하다. 작품 전반에서 제인은 끊임없이 남과 구분되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확신과 그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지만 그 의식의 너머에는 남과 자신의 구분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제인이 이를 분명히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제인의 내면을 침투한다.

한편, 테스의 경우에는 소설의 서술 자체가 『제인 에어』와 확연히 구별되기에 테스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앞서 서술자가 테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목을 끈다. 제인은 창틀에 커튼까지 치고 앉아 있는 고독한 존재로 등장하지만, 테스는 여러 여성들 무리 중의 한 명으로 등장하고, 그 무리를 묘사하는 서술의 흐름을 끊고 끼어든 한 여성의 목소리에 의해 “테스 더비필드”(Tess Durbeyfield)라는 이름이 텍스트에 처음 등장한다. 서술자는 소설 내내 여성들을 묘사할 때, 그들의 집합성과 개체성에 번갈아가며 주목하는데, 주인공인 테스도 “여성들”(women)이라는 집합의 일원이었다가 그녀만의 정체성을 지닌 보다 분명한 개체인 “테스”로 구별되는 방식이 반복된다. 여성들의 집합성과 개체성을 오가는 서술의 예는 처음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축제를 위해 모인 말롯(Marlott)의 여성들은 모두 하얀색 옷을 통일해서 입었지만, “그들 중 어떤 두 흰색도 같지 않다”(no two whites were alike among them 19). 그들에겐 공통의 특징, 혹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표현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개체들이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눈을, 다른 이들은 아름다운 코를, 또 다른 이들은 아름다운 입과 몸매를 지녔다: 몇 명만이,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가졌다. 이렇게 공공의 응시에 공공연하게 노출되는 속에서 그들이 입술을 가지런히 하기도 어려워하고, 머리의 균형을 잡기도, 그들의 모습에서 자의식을 떨쳐내기도 어려워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은 진정한 시골 소녀들임을 보여줬다.

Some had beautiful eyes, others a beautiful nose, others a beautiful mouth and figure: few, if any, had all. A difficulty of arranging their lips in this crude exposure to public scrutiny, an inability to balance their heads, and to dissociate self-consciousness from their features, was apparent in them, and showed that they were genuine country girls, unaccustomed to many eyes. (20)

위의 묘사에서 말롯의 소녀들은 모두 다른 외양을 가졌음에도 “진정한 시골 소

녀들”이라는 표현으로 묶인다. 소녀들에 대한 이런 묘사는 곧 그 주위를 지나가는 테스 아버지에 대한 친구의 말로 인해 “혼자서만 빨간 리본을 단” 테스의 의식에 근접한 서술로 전환된다. 서술자는 이제 소녀들의 ‘무리’가 아니라 테스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에 좀 더 주목함으로써, 이 소설이 “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임을 드러낸다. 이런 방식의 서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더버빌 가의 테스』라는 소설 자체가 여성을 집합적으로 인식하는 일반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레이크(Kathleen Blake)는 소설에서 테스를 비롯한 농촌 여성들이 자연 속에서 경계가 없는 존재들로 묘사되기도 하고, 고유의 개체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는 서술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일반화와 그로 인한 이상화가 에인젤의 테스에 대한 태도와 이에 대한 테스의 저항을 통해 문제시되고 있음을 밝힌다.¹⁾ 그런데 테스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초점은 밖에서 테스를 보는 시선에 놓여있지, 테스의 내면에 놓여있지 않다. 즉, 테스가 자신을 남들과 같다고 인식하는지, 다르다고 인식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다.

테스 자신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소녀로, 독자가 처음 접하게 되는 테스의 감정은 바로 “테스의 자존심”(Tess's pride 21)이다. 술 취해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놀리는 친구의 말에 테스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창피함을 느끼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이것 봐, 내가 아빠에 대해서 계속 놀리면, 너랑은 일 인치도 더 같이 걷지 않을 거야!”(Look here; I won't walk another inch with you, if you say any jokes about him! 20)라 발끈한다. 뒤이은 에인젤의 등장에서도 테스는 자신을 춤 상대로 택하지 않은 에인젤에게 “희미한 질책”(the faintest aspect of reproach 23)의 눈빛을 보내고 에인젤은 이에 절로 미안함을 느낀다. 에인젤이 떠나면서 다시 뒤 돌아본 풍경에서도 테스는 하얀 형제들의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에인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테스의 자존심은 테스 역시도 제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강한 소녀임을 알게 한다. 테스로부터의 거리를 변주하는 서술은 테스 개인에 집중하는 동시에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게 하지만, “여성들”과 “테스”가 구별되는 지점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다.

1) 블레이크는 서술자 자신도 종종 여성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인젤과 같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설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반화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지적한다(701).

“여성 전체”와 “테스” 사이를 오가는 서술에서 테스 주위의 여성들 개개인에 대한 조명은 흐려진다. 그렇지만 자존심 강한 테스의 정체성도 주변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구성된다.

테스도, 제인도 자신들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점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제인에게는 정신적 우월성으로 인식되고, 테스에게는 자존심으로 드러난다. 이는 곧 이들이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인은 리드 가족에게 자신이, 자신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생각하며, 테스는 타인의 무심한 반응에 순간순간 움찔하고 이내 발끈하는 예민한 소녀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정체성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이기도 하다. 제인도, 테스도 아직은 “경험으로 채색되지 않은 감정의 그릇일 뿐”(a mere vessel of emotion untinged by experience, *Tess* 21)이다. 그들의 성장은 이런 감정들이 그들의 경험과 어우러져 그들의 정체성 안으로 흘러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이들은 어렸을 때처럼 순간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고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이들에게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게이츠헤드의 제인에게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나는 항상 고통 받고, 항상 야단맞으며, 항상 비난받고, 영원히 벌을 받는 거지?” (Why was I always suffering, always brow-beaten, always accused, for ever condemned? 15, 필자 강조)라는 제인의 절규다. 세상이 부당하다(unjust)는 인식은 항상 “그녀만” 벌 받고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비롯되며, 아직 이러한 분노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게이츠헤드의 생활에서 제인은 혼자만 불만족하고, 혼자만 저항하며, 혼자만 외롭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이 가능할리 없다. 제인이 게이츠헤드를 떠나 로우드로 가면서 경험하는 변화는 부당한 현실이 자기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확장이고, 이는 헬렌 번즈를 통해 이루어진다. 낯선 학교생활에서 제인은 “소외의 감정은 익숙한 것이었고, 나를 별로 억압하지 않았다”(feeling of isolation I was accustomed; it did not oppress me much 48)라거나 “나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는 무리들 사이를 홀로 거닐었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I wandered as usual among... laughing groups without a companion, yet not feeling lonely 54)라며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거부하려 하지만, 이런 생각들 뒤에 그녀는 언제나 헬렌

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 헬렌에게 “모종의 공감”(a chord of sympathy 49)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다가간 헬렌은 제인에게 “함께 고통 받는 친구”(fellow-sufferer)가 된다. 헬렌은 게이츠헤드에서의 제인과 같이 로우드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는 아이이다. 그 처벌은 제인이 보기에 매우 부당한 것이지만, 헬렌은 제인이 기대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는다. 고작 한 번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인 헬렌이 스캐처드 선생(Miss Scatcherd)에게 목을 맞는 것을 보는 제인은 손가락이 “소용없는 무력한 분노”(unavailing and impotent anger 54)로 떨릴 정도로 헬렌의 경험에 동참한다. 또 제인은 “단정치 못한 계집”(Slattern)이라는 쪽지를 이마에 붙이고도 묵묵히 참는 헬렌의 태도에 “가슴에 참을 수 없는 고통”(an intolerable pain at the heart 74)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쪽지를 찢어 불에 던져 넣는다. 이 장면은 이후에는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제인의 강렬한 공감과 감정 표출을 보여준다.

헬렌은 제인의 어린 시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에도, 기존의 비평들은 그녀를 제인과 대비되는, 희생하고 인내하는 순교자상으로부터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제인은 헬렌에게 정신적, 종교적 영향을 받기에 앞서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제인이 게이츠헤드에서 경험한 억압은 헬렌을 통해 공동의 억압으로 확장되고, “왜 나만 고통받는가”라는 괴로움은 내가 아닌 타인이 경험하는 억압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 상대방의 억압에 분노하게 되는 것은 로우드에 온 제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이다. 제인과 헬렌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는 것들임을 생각할 때, 혼자만의 경험이 확장되는 것은 진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헬렌이 지닌 인내와 자제의 정신이 제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인은 분명 헬렌의 태도를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게이츠헤드에서의 일을 템플 선생(Miss Temple)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헬렌의 영향이 드러난다. 제인은 이미 이전에 의사 로이드(Mr. Lloyd)와 헬렌에게 붉은 방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야기했다. 헬렌에게 이야기할 때 제인은 자신이 느낀 대로 삼가거나 완화시키지 않고 이야기한다(I spoke as I felt, without reserve or softening 58). 그러나 템플 선생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인은 “분노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헬렌의 경고를 염두에 두면서”(mindful of Helen's warnings against the indulgence of resentment 71) 보다 자제된 서술을 보인다. 아쉽게도 독자는 이 세 번의 서술 모두 직접 들을 순 없지만, 제인은 분명 자신의 서술이 달라졌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헬렌이 제인의 분노 표출에 대해서 언급

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마치고 리드부인이 나쁘지 않냐고 묻는 제인에게 헬렌은 대답한다.

“그녀가 너에게 한 일과 말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녀의 부당함이 네 가슴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 것처럼 보이는 걸! 어떤 나쁜 취급도 내 감정에 그렇게 기록의 낙인을 남기지는 않는데. 그녀의 가혹함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격렬한 감정들을 잊으려 노력한다면 네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적대감을 키우고 악행들을 기억하면서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

“how minutely you remember all she has done and said to you! What a singularly deep impression her injustice seems to have made on your heart! No ill usage so brands its record on my feelings. *Would you not be happier* if you tried to forget her severity, together with the passionate emotions it excited? Life appears to me too short to be spent in nursing animosity, or registering wrongs. (58, 필자 강조)

헬렌의 인내와 자제는 곧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be happier*) 방식이었고, 그동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제인에게 그것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다. 리드 부인에게 격렬한 저항의 말들을 쏟아놓고 난 제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후회가 이런 점을 암시하긴 했지만, 헬렌은 그것을 제인에게 꼭 집어 지적한다. 그녀들이 경험하는 억압은 그들의 저항으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인은 항상 무력함을 느낀다. 그런 가운데 헬렌은 나쁜 감정을 마음에 품어 각인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잊음으로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인에게 인지시켜준다. 물론 제인은 그녀가 인정하듯 “헬렌 번즈가 아니다”(I was no Helen Burns 65). 그녀는 그 후로도 부당한 억압에 분노하는 감정을 잃지 않으며, 헬렌과 자신을 구별한다. 대신 제인은 그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그대로 품기 보다는 절제하는 방식을 배운다. 그리고 제인이 헬렌이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를 짚지를 찢고 울어줌으로써 대신했다면, 헬렌은 의자 위에 홀로 세워져 있는 제인에게 그녀의 따듯한 눈빛과 미소로 힘을 준다. 제인의 히스테리를 자제시키는 이 힘은 누군가 나를 억압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보내주는 응원의 눈빛이 그 억압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인은 헬렌 번즈를 통해 성장한다. 이 질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제인은 헬렌을 통해 공동의 억압 속에 자신을 위치

시키게 되었고, 헬렌을 통해 분노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헬렌은 그녀가 어떤 정신을 지닌 인물인가 이전에 제인을 처음으로 "darling"이라 불러주는 존재이며(82), 제인이 게이츠헤드에서 느꼈던 여러 의미의 고립감을 해소시켜주는 소중한 친구이다.

헬렌과의 만남을 통해 제인은 자기만의 의식에서 벗어나 남의 고통을 인지하는 경험을 했고, 이후에 만나는 여성들에게도 억압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공감은 유지된다. 헬렌의 죽음 이후 8년의 시간 동안 제인의 서술은 단절된다. 아마 제인의 신체적, 지적 성장은 말해지지 않는 이 8년 동안 대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간략한 서술로 대체되는 것은 제인의 정체성, 자아 형성에서 이 8년의 시간이 붉은 방의 기억부터 헬렌의 죽음에 이르는 짧은 기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간을 뛰어넘고도 우리는 성장한 제인을 낱설어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경험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이 시간 동안 그녀에게 친구이자 엄마이며, 선생님이 되어준 템플 선생은 쇼왈터(Elaine Showalter)의 표현을 빌자면 "가부장적 독재를 대신하여 여성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곳"(117)인 로우드에서 제인을 그 감시 속에서 교육시켜준 여성이다. 헬렌에게는 강한 종교적 열정이 있었던 반면, 템플 선생은 절제되고 차분한 심성을 지닌 여성이고, 제인은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규율 바르고 완화된 성격"(a disciplined and subdued character 84)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제인의 천성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템플 선생에게 잠시 빌려온"(borrowed of Miss Temple 84) 성격이었고 제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템플 선생이 떠나고 제인은 "자신의 본성"(my natural element 84)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복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낀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남들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다시금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쏘넬드에서 제인은 헬렌에게 느꼈던 감정적 공감과 애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자신과 완전히 구별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쏘넬드에서 제인은 버사와 블랑쉬를 만난다. 서틀워스는 제인의 두 라이벌인 버사와 블랑쉬가 같은 사회적 계층에 속해있으며, 상류층 여성의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는데(168), 그런 버사, 블랑쉬와 제인은 드러나지 않는 삼각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로체스터와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제인에게 중요하다고 할 때, 이 두 여성은 경쟁하여 물리쳐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보이는 것은 제인이 아니라 로체스터이다. 로체스터는 확실히 이 두 여성과 제인을 대립시키며, 이 두 여성의 존재가 사라져야 자신과 제인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버사를 숨기고, 블랑쉬를 떠나게 하여 제인을 얻는다. 제인

은 이러한 경쟁적인 관계로 버사와 블랑쉬를 보지 않는다. 오히려 두 여성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에게는 결여된 연민이나 이해의 태도를 보인다. 버사는 줄곧 제인의 더블(double)이나 제인이 표출하지 못하는 억압에 대한 분노를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제인으로체스터와의 관계에서 억압되는 순간들과 이에 따르는 버사의 공격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논한 구바(Susan Gubar)와 길버트(Sandra M. Gilbert), 푸비(Mary Poovey)의 주장을 통해 제인과 버사가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그렇다면 제인과 버사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제인이 버사를 인식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제인은 실제로는 버사를 딱 두 번—버사가 제인의 방에 침입했을 때와 결혼식 날 아침에 대면했을 때—밖에 보지 못하며, 결혼식 날 전까지 제인은 그레이스 풀(Grace Poole)을 통해 버사를 인식한다. 제인은 누군가가 로체스터의 침대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로체스터가 그 대상을 내쫓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 여자’가 과거 로체스터와 애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닐까를 의심한다. 이런 제인의 생각은 정확하다. 제인은 “대담하고, 보복적이며 거만한 신사”가 “가장 초라한 그의 하녀”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미스테리를 해결해줄 열쇠는 로체스터의 그녀에 대한 애정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56). 그레이스의 외모를 떠올리며 그런 추리를 접으려는 그녀에게 떠오른 자신의 외모도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은 로체스터를 두고 자신과 그레이스를 비교하도록 하기에 이른다. 제인은 자신은 “꽤나 숙녀”(quite a lady)이기에 그레이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버사는 제인보다 더 신분이 높다는 점에서 제인이 주장하는 차이점은 곧 모호해진다. 로체스터를 두고 제인은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과 버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미묘한 경쟁심을 느낀다. 한편 제인은 여전히 그레이스를 방화범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녀에게 왠지 모를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제인은 하루에 한 번만 부엌에 다녀가는 그레이스의 일상과 3층에서 간혹 들리는 기이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만의 어둡한 위층의 소굴”(her own gloomy, upper haunt 164)을 떠올리며 그녀가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혼자”(companionless as a prisoner in his dungeon 164) 있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누구도(not a soul) 그녀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녀의 고독과 소외를 동정하지 않는다”(no one pitied her solitude or isolation 164)는 사실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홀로 갇히는 경험은 제인에게 낯설지 않고, 아무에게 동정 받지 못하는 것도 그러하다. 제인에게 강렬히 각인된 붉은 방의 기억 속에서 제인은 홀로 갇혔던 것이다. 제인이 그레이스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녀를 동정한다고 분

명히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companionless”와 “isolation” 같은 단어들은 제인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단어들이다.

버사가 주로 로체스터의 서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존재이기에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지만, 이렇게 제인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버사는 이미 어느 정도 실체를 지니고 있다. 제인은 혼자 상상만 할 뿐이지만, 그 상상은 곧 현실에 대부분 들어맞는다. 제인은 전혀 대면한 적 없는 다른 여성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후에 자신의 결혼을 가로막는 존재로 대면하게 되는 버사에게도 제인은 로체스터와 달리 연민을 표한다. 제인은 로체스터가 자신의 미친 아내를 경멸하는 말을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당신은 그 불행한 여자에게 너무도 냉혹하군요…그건 잔인해요—그녀도 미치는 걸 어쩔 순 없잖아요.” (you are inexorable for that unfortunate lady…It is cruel—she cannot help being mad 301)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미쳐도 로체스터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리라는 제인의 주장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온건함(sanity)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했던 제인이 버사와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이츠헤드에서의 제인처럼, 쏘넬드에 갇힌 버사는 인종적으로도 남들과 구별되는 진정 “이질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미친 버사는 로체스터에게 의면당하지만, 제인은 미치지 않기 위해, 로체스터에게 의면당해 홀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 쏘넬드를 떠난다.

한편, 블랑쉬는 제인과 버사보다 더욱 확연한 대립각을 이루는 여성으로 제인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훨씬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 블랑쉬를 또렷이 인식한다. 제인은 페어팩스 부인(Mrs. Fairfax)에게 블랑쉬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외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와 로체스터 사이를 묻는다. 페어팩스 부인은 두 사람의 나이차를 언급하며 둘이 맺어질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제인은 블랑쉬를 모름에도 그 가능성을 확신한다. 이 장면이 제인이 그레이스 폴과 로체스터 사이를 의심한 바로 다음 장면임을 생각하면, 제인의 사랑이 다른 여성들에 대한 경계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제인은 블랑쉬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수치스러워한다. 이 순간 제인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자신’이 로체스터로 인해 초라해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블랑쉬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응시하기 위해서 제인은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다.

“잘 들어, 자, 제인 에이, 너의 판결을. 내일, 네 앞에 거울을 놓고, 분필

로 네 모습을 그리는 거야. 정확하게, 어떤 단점도 완화시키지 말고, 어떤 거친 선도 생략해선 안 돼. 맘에 들지 않는 불규칙함도 매끄럽게 하지 마. 그리고 그 밑에 적는 거야. '연고 없고, 가난하고, 평범한 한 가정교사의 초상' 이라고."

"Listen, then, Jane Eyre, to your sentence: to-morrow, place the glass before you, and draw in chalk your own picture, faithfully; without softening one defect: omit no harsh line, smooth away no displeasing irregularity; write under it, 'Portrait of a Governess, disconnected, poor, and plain.' (161)

이렇게 그려진 제인의 초상은 '블랑쉬, 교양 있는 상류층의 숙녀' (Blanche, an accomplished lady of rank 161)라 이름 붙여진 블랑쉬의 상상된 아름다운 초상 옆에 놓인다. 이 행위는 제인이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다. 제인은 이렇게 곁에 있지도 않은 블랑쉬라는 다른 여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제인은 가난하고, 못생기고, 평범한 가정교사보다 교양 있고, 아름다운 숙녀가 더 로체스터의 눈길을 끌 여자라는 것을 알고, 블랑쉬를 통해 제인의 현실은 더욱 분명하고 냉정해진다. 그렇지만 리드 부인에게 그랬듯 제인은 블랑쉬보다 자신이 내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또한 안다. 제인은 블랑쉬를 통해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외적 열등함과 내적 우월함 모두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블랑쉬와 같은 숙녀들이 쏜필드를 채우자 제인은 버사처럼 자신의 "은신처" (asylum 167)²⁾로 숨고, 블랑쉬는 자신이 질투를 느끼기엔 너무 열등한 여성이라며 다시금 자신의 다름에 대한 확신을 보인다.

그런 블랑쉬에게도 제인이 조금 다른 인식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 로체스터와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 날, 제인은 궁금한 것이 있다며 로체스터에게 말을 꺼내고 로체스터는 그것이 혹시나 자신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것일까 전전긍긍한다. 이 장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상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로체스터의 태도이고 그로 인해 암시되는 위험한 비밀이지만, 제인이 묻는 내용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녀가 물어야만 하는 것" (what I have to ask 262)은 바로 블랑쉬에 대한 내용이다.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왜 블랑쉬와 결혼할 것처럼 믿도록 한 것인지를 묻는다. 로체스터가 제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고 설명하자 제인은 "잉

2) 이 "asylum"이 정신병자 수용소로도 쓰인다는 사실은 버사와 제인의 또 다른 연결고리이다.

그럼 양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나요?” (Did you think nothing of Miss Ingram’s feelings, sir? 262)라고 묻는다. 로체스터가 여성들 간의 질투심을 유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동은 폭력적이지만, 제인은 “잉그럼 양이 당신의 부정직한 농락으로 고통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쓸쓸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Do you think Miss Ingram will not suffer from your dishonest coquetry? Won’t she feel forsaken and deserted? 263)라며 블랑쉬의 감정에 대한 염려를 보인다. 이러한 염려는 “아무도 내가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쓰라린 아픔으로 고통 받지 않는다” (any one else is suffering the bitter pain I myself felt a while ago 262, 필자 강조)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키는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답을 통해서만 제인과 블랑쉬의 관계가 그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장면에서 제인은 블랑쉬에게 그 경쟁심을 넘어서는 이해를 보인다. 이것은 블랑쉬가 로체스터의 생각대로 전혀 로체스터의 행동에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제인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블랑쉬의 감정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인은 버사도, 블랑쉬도 자신처럼 버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결국 제인은 블랑쉬와 버사, 그리고 이전의 정부들에게 로체스터가 했던 행동들 모두에서 가부장적인 억압과 폭력성을 발견하고, 그들이 결코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제인이 “나만은 나를 염려해”라 다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버사와 로체스터의 연기 속에 스스로를 지킬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블랑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다짐이다. 제인은 쏘넬드에서 만나고, 듣고, 접한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자기보존이 필요한지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 제인이 쏘넬드를 떠나 방황하는 여정은 로체스터가 이야기하는 억압과는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그렇게 쏘넬드 밖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제인으로 하여금 남녀관계를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다. 너무나 강렬했던 로체스터와의 사랑을 뒤로하고 떠난 제인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속을 헤맨다. 당장 먹고 자는 편의를 잃은 제인은 진정한 자신의 혈연들이 살고 있는 곳, 무어하우스에 이른다.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I am a stranger)라 자신을 소개하며 무어 하우스에 들어온 제인은 이곳에서 줄곧 어디서든 “낯선 이”였던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극복한다. 처음부터 제인은 끊임없이 자신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욕망했고, 로체스터가 있는 쏘넬드는 그녀의 집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집이라 믿었던 그 곳에서 제인은 정작 중요한 비밀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타인이었다. 제인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게이츠헤드

에서의 끔찍한 소외로 얼룩져있고, 제인의 첫 친구인 헬렌도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버려진' 아이였다. 고아 시설에서 자라난 제인은, 아델(Adele)도 역시 버림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더 큰 애착을 느낀다. 그리고 마침내 집 밖의 굶주림과 거친 잠자리로 죽어가던 제인은 무어 하우스에서 그토록 그녀가 바라던 가정에 속하게 된다. 리버스 남매가 단순히 정신적인 친족일 뿐 아니라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사실이 제인에게 주는 안정감은 엄청난 것이다. 어디서나 "낯선 이"였던 제인이 결혼식 날 아침 거울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인식했다면, 이제 제인은 결코 "낯선 이"일 수 없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다이애나(Diana)와 메리(Mary)는 제인이 지향하는 자매애를 보여주는데, 게이츠헤드의 일라이자(Eliza), 조지아나(Georgiana) 자매와 달리 이들은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리드 자매와 리버스 자매는 남성이 없는 가정에 남겨진 여성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같다. 리드 자매는 오빠인 존(John)이 방탕한 생활 끝에 죽고, 어머니마저 죽어가자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다. 여성으로서 그들이 가정 밖의 미래로 선택하는 것은 수도 생활과 결혼이다. 제인이 이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을 내비치지 않지만, 이제 존이 사라진 게이츠헤드에서 리드 자매는 존에게 제인을 일러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제인의 위로와 존재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되었다. 한편, 제인과 같은 가정교사인 리버스 자매는 아버지가 죽고, 세인트 존이 선교 활동을 떠나고 나면 돌아올 곳마저 없어진다. 세인트 존과 달리 다이애나와 메리는 무어 하우스에 매우 큰 애정을 지니고 있고, 가정교사 일을 하러 집을 떠나는 것에 매우 슬퍼한다. 처음부터 가정에 속하지 못했던 제인과 달리 리버스 자매는 가정교사가 된다는 것이 가정을 떠나 그들을 그저 "보잘 것 없는 피부양자"(*humble dependents* 352)로 여기는 부유한 가족들 틈에서 사는 것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제인은 이제 가정교사 일을 "낯선 이들 가운데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slaving amongst strangers!* 387)이라 인식하게 된다. 그 자신이 낯선 이였던 과거의 제인에게 또 다른 낯선 이는 오히려 의사 로이드의 경우처럼 그녀에게 안정을 주는 존재였고, 로우드를 떠날 때의 제인도 낯선 사람과 경험을 갈망했다. 그러나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제인은 이제 낯선 곳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정을 갈망한다.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나는 집과 친척을 가져야만 하겠어요"(*I am resolved I will have a home and connexions* 386)라는 다짐에는 제인의 과거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꾸려나가는 가정에 대한 꿈은 제인에게 새로운 독립이다.

메이터스(Jill Matus)의 말대로 제인은 "위협적인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 살

아가며, 제인의 서술의 특징은 “존재의 위험”(perilousness of existence)에 대한 위기감이다(115). 사랑하는 사람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고, 헬렌은 죽고, 템플 선생은 떠나간다. 그렇지만 자신이 오로지 홀로 맞서고 있다는 어린 시절의 생각을 극복하는 것은 제인을 영원히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기 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발걸음을 내딛어간다. 그렇게 다져진 제인은 더 이상 그녀에게 숨길 것이 없어진 로체스터의 눈과 팔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4.

제인과 비교할 때 테스는 관계의 결핍을 겪는 듯하다. 테스는 “여러 여성인물들의 전시”를 접한다고 할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을 만나지도 않으며, 자신처럼 가난한 농업노동자인 여성들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그나마 테스와 친한 목장의 동료들에게도 테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고, 오로지 어머니에게만 이를 털어놓는다. 전지적 시점의 서술도 『제인 에어』에서와 달리 테스의 의식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에, 테스가 어머니나 목장 동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세세히 드러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는 제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을 인식해가고, 이것이 테스의 비극을 설명하기도 한다. 테스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보우멜하(Penny Boumelha)의 주장처럼 테스의 비극적 결함은 그녀의 섹슈얼리티 자체일 수도 있고(123), 결국 에인젤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함일 수도 있고, 알렉(Alec)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순진함일 수도 있겠다. 테스의 슬프지만 위엄 있는 삶을 이끄는 또 한 가지 동력은 바로 테스의 책임의식이다. 테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거부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알렉과의 일을 강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테스 자신은 그 일로 인한 시련들을 묵묵히 견뎌나감으로써 책임지려 한다. 테스의 책임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테스가 “더비필드 선”(Dubeyfield ship 28) 탑승객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보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은 주로 그녀의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후에는 목장 동료들에게도 확장된다.

테스가 소녀들 무리에서 보이는 예민한 감정적 반응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 테스는 집에 돌아오면서 더욱 강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는 바로 “강렬한 자책감”(a chill self-reproach 25)이다. 테스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언제나처럼”(as usual) 요람을 흔들며 노래하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이다.

“테스가 너무나도 잘 아는”(sounds that she knew well—so well 24) 요람의 삐걱 소리는 언제나 테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듣는 소리이고, 바로 그녀의 어머니, 조안(Joan)의 가사 노동을 암시하는 소리이다. 집안의 맏딸로서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대리 같은”(deputy-maternal 28) 감정을 느끼는 테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강렬한 애착과 연민,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을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가 힘들게 빨고 다려주신 하얀 옷”(which had been wrung up and ironed by her mother’s own hands 25)을 입고 나가 신나게 놀고 옷에 물까지 들여온 테스는 “끔찍한 후회의 아픔”(a dreadful sting of remorse)을 떨쳐낼 수 없다.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for so many years) “너무나 많은 아이들”(so many children)을 재우느라 닳아버린 요람은 그 세월동안 끊임없이 요람을 흔들었을 조안의 삶을 상징한다.

어머니 자신은 경쾌한 곡조로 노래를 부르고, 테스가 나가 놀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지만, 집안의 “말할 수 없는 음울함”(an unspeakable dreariness) 앞에서 테스는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을 멈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내일 일을 해야 함에도 술을 마시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테스의 눈에는 “절로 눈물이 차오르고”(the tears welling to her eyes 27), 결국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술집에서 돌아오지 않자 테스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I must go myself 29)며 집을 나선다. 테스에게 가족은 이런 존재이다. 무능한 부모에게 그들의 존립이 달려있는 더비필드션은 언제나 테스가 지탱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고, 집안의 모든 가사를 담당하는 어머니에 대한 테스의 연민은 부모와 동생들을 향한 테스의 강한 책임감을 동반한다. 테스의 어깨에는 가족이라는 짐이 얹어지고, 테스는 이들의 대표로서 트랜트리지(Trantridge)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입고 나간 하얀 옷이 어머니의 노동의 결과임을 인식하는 테스는 그 옷을 입고 트랜트리지로 가면서 어머니의 힘겨운 노동과 가족들의 고생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조안은 남편을 찾으러 술집으로 가면서 가사 노동의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한다. 조안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순간적인 해방감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테스는 그렇게 평생을 계속되어온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자신이 나눠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 그들 가족이 “온전한 별”의 운명 속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를 묻는 동생 아브라함(Abraham)에게 테스는 대답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항상 빨래하면서도, 결코 끝내지 못하는 일이 없었겠지”(mother wouldn’t have been always washing, and never getting finished 36)라고.

테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정작 테스를 알렉에게로 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안타깝다. 과연 트랜트리지로 테스가 가려고 할지를 묻는 질문에 조안은 “그 애는 근본은 다루기 쉬운 아이예요. 나에게 맡겨요”(But she's tractable at bottom. Leave her to me. 32)라며 자신감을 보인다. 테스가 어머니에게 다루기 쉬운 딸인 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항상 느끼는 미안함, 안쓰러움 때문일 것이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오히려 가족의 고생을 근거로 테스를 트랜트리지로 보내고, 말 프린스를 죽였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진 테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테스는 자존심이 강한 소녀이면서도, 이렇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부담을 자신 위에 지고 살아가기에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테스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항상 염려해야 한다. 테스에게 예쁜 옷을 입혀 트랜트리지로 보내는 조안의 판단이 테스의 비극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해도, 이 모녀간에는 강한 애착이 있고 테스는 힘들 때 언제나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위안을 구한다. 테스가 알렉을 떠나올 때, 에인젤에게 버림받고 돌아올 때,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 위로받는다. “아 엄마, 우리 엄마!”(O mother, my mother! 87)라는 외침으로 테스는 그 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고통과 슬픔을 토해내고 어머니의 목에 얼굴을 묻은 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에인젤과 헤어지고 돌아온 테스는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터뜨림으로써 “너무나 오랜 날 동안 계속됐던 긴장이 마침내 해소된다”(the tension of so many days having relaxed at last 250). 조안은 테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적절한 위로를 해주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테스에게 조안은 어머니이다.

사회와 기독교의 법도와 구별되는 자연과 이교도의 법도를 따르는 여성으로 테스를 설명하는 스테이브(Shirley A. Stave)는 조안과 테스가 이런 점에서 유대를 이룬다고 강조하는데(107), 조안이 가부장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크게 개의치 않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테스의 시련에 대해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잘 극복해야지”(Well, we must make the best of it, I suppose 88)라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지”(what's done can't be undone 251)라며 빨리 그것을 털고 다시 살아가자는 조안의 태도는 고된 가사 노동을 잠깐의 외출로 잊으려는 것과 같다.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저 회피일 수 있음을 아는 테스는 어머니처럼 반응하지 않지만, 조안의 태도는 나름대로 그녀의 경험과 삶에 기반한 것이다. 입으로 들고 도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조안은 테스와 같은 일을 겪고도 잘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테스에게 해주고, 테스는 후에 에인젤에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셨어요—나보다 더 나쁜 경우도 여럿 아시는데, 남편들이 별로 개의치 않았

다고 하셨어요”(my mother says that it sometimes happens so—she knows several cases when they were worse than I, and the husband has not minded it much 229)라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한다. 모간(Rosemarie Morgan)의 지적대로 에인젤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 많은 여성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의 여자 경험에 비추어 테스를 판단한다.³⁾ 소설에서 여성을 일반화하고 이상화하는 시각이 문제된다고 했을 때 조안도 테스에게 ‘다른 여자들은 너처럼 하지 않아’라고 쉽게 얘기함으로써 테스의 문제를 일반화하려는 잘못을 범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논리는 에인젤보다는 훨씬 폭넓은 직간접 경험에 의존한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모르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테스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상의하는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삶을 테스처럼 보지 않았다”(Her mother did not see life as Tess saw it 192)라는 인식이 테스에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엄마가 옳을지도 몰라”(perhaps her mother was right 192)라고 생각한다. 테스와 어머니 사이의 유대가 에인젤이 대변하는 남성적인 사회의 시각에 대립한다면, 이는 이 모녀가 테스의 과거 역시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보이는 공통점에서 기인할 것이다.

테스는 이렇게 어머니의 모성에 기대고 그 모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집을 떠나 생활할 때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대신에 감정으로 묶이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마리안(Marian), 이즈(Izz Huett), 레티(Retty)이다. “집 안에 기거하는 다른 세 명의 젖 짜는 여성들”(the other three indoor milkmaids 117)로 소개되며 줄곧 셋이 한 무리로 묘사되는 이 여성들은 처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고, 그저 에인젤을 좋아하는 목장 아가씨들 정도로만 인식된다. 테스도 처음에는 이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들이 에인젤을 몰래 지켜보며 관심을 표하는 때부터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서로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고 테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 여성들 사이에는 묘한 진정성이 존재한다. “우리끼리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야”(It is silly to pretend otherwise amongst ourselves 140)라며 에인젤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마리안을 따라 이즈와 레티가 뒤이어 고백을 하고 테스는 누워서 이를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에인젤이 테스를 제일 좋아한다는 말로부터 “신사의 아들”(a gentleman's son)인 에인젤이 그들 자신이나 테스와 결혼할리 없다는 안타까운

3) 모간은 에인젤이 그의 여자 경험에 근거해서 테스의 거절하는 태도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한다.

현실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대화를 들은 테스는 에인젤이 자신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른 여성들에게서 클레어의 관심을 빼앗고 있다”(draw off Mr Clare's attention from other women 141)고 인식한다. 테스는 에인젤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질투가 아니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희생적인 정신으로 다른 동료들에게로 에인젤의 관심을 돌리려는 테스의 노력은 축은하기까지 하다.

에인젤이 이 네 명을 강에서 안아 건네주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데, 에인젤과 맺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네 여성 사이에 흐르는 경계심과 긴장감은 나머지 세 여성을 에인젤이 생각하듯, 테스에 이르기 위한 길목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면이 있다. “4인조”(quartet)로 한데 묶여 묘사되는 이들이지만, 중요한 건 테스인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테스에게 이들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에인젤이 테스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 이 “관대한 어린 영혼들”(generous young souls)은 테스를 비난하지 않고, 이들의 모습에 테스는 “마음 아파한다”(Tess's heart ached 148). 이들이 테스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운명론”(fatalism)에 익숙한 시골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테스도 마찬가지다. 테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쉽게 헤어 나올 수 있는 운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해간다. 그런 테스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며 테스를 바라보는 세 친구들의 눈빛은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다. “희망이 없었기에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솔직함과 매우 적은 질투가 존재했고”(There was so much frankness and so little jealousy because there was no hope 149), 이들이 보여주는 순수성, 정직함, 관대함은 테스에게는 또 하나의 벗어던질 수 없는 짐이 된다.

동료들의 정직함은 테스에게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했고, 그들의 관대한 눈빛은 테스의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에인젤은 테스와 자신의 “전율하는 삶”(tremulous lives 184)과 세 여성의 삶을 대비시키지만 테스는 결국 그들 모두가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고, 전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여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여성”(Every women)의 범주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다른 이들의 언어에 저항하던 테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는 친구들의 마음을 아는 테스는 결혼식 날 에인젤에게 그녀들을 위한 작별 키스를 해주라고 말하고, 이것은 억누르던 그들의 감정을 다시금 되살린다. 이 세 여성은 그만큼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에인젤의 키스에 만족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사랑으로 죽으려고 할 만큼 큰 고통을 느끼는 이들은 강한 감정과 욕망을 지닌 여성

들이다. 이전에도 그녀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잘못하고 있다며 에인젤에게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던 테스는 그들이 죽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듣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그녀의 방향을 바꾸어놓았다. 그들은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랑의 불행에 빠진 소박하고 순수한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운명으로부터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더 나쁜 것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받았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었다. 그녀는 그 값을 전부 다 치를 것이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그 시간 그 곳에서.

This incident had turned the scale for her. They were simple and innocent girls on whom the unhappiness of unrequited love had fallen: they had deserved better at the hands of fate. She had deserved worse; yet she was the chosen one. It was wicked of her to take all without paying. She would pay to the uttermost farthing: she would tell, there and then.

이러한 최후의 결심은 그녀로 하여금 에인젤에게 과거를 고백하도록 만들고, 테스는 정말로 그 값을 치른다. 왜 테스는 이렇게 다른 여성의 고통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는 걸까. 이 일이 아니어도 테스는 에인젤에게 언제나 고백했겠지만, 다른 여성들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는 생각은 테스에게 마음 아픈 결심을 하게 한다. 그렇게 값을 치르는 테스의 곁에는 다시 마리앤과 이즈가 있고, 이들은 그녀의 육체적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기도 하고, 그녀와 탈보세이즈에서의 좋았던 추억을 나누며 괴로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이즈가 브라질로 떠나자는 에인젤에게 자신이 테스보다 그를 더 사랑할 순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리앤과 이즈가 “행복을 비는 두 사람”(Two Well-wishers 351)이라는 이름으로 테스를 위해 에인젤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의 애ত한 우정은 분명 표면적인 경쟁관계임에도 그들 내에 흐르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테스엔 다른 여성으로 하여금 “악의와 경쟁심”(287)을 넘어서도록 만드는 힘이 있고, 테스 자신도 다른 여성들을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테스는 오히려 자신의 운명의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의 운명의 무게를 덜어주려는 의지를 보인다.

제인이 자신도 모르게 버사나 블랑쉬 같은 여성들에게도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테스는 소수의 여성들과 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 유대감은 제인과 헬렌의 관계와도 다른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모두 함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하는 유대이다. 테스의 어머니가 대변하는 농촌대가족 어머니의 삶, 목장 동료들이 보여주는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사랑을 테스는 자신의 삶과 분명히 구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일종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있기에 테스는 자기 몫의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하여 테스는 홀로 견고, 홀로 노동할 때도, 결코 혼자가 되지 못한다. 테스가 다른 여성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테스를 희생적인 인물로 만들지는 않는다. 남성들이 테스의 순결성에 집착하는 가운데, 테스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난한 농촌의 딸로서 일하고, 사랑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런 테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테스가 죽기 전에 리자루와 에이젤을 엮어주는 것을 이해한다면, 테스는 리자루가 자신이나 다른 목장 동료처럼 현실 속에서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감정에 괴로워하기 보다는 에이젤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을 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리자루가 에이젤과 맺어지면 “마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은 것 같을 것”(it would almost seem as if death had not divided us 380)이라는 테스의 말은 자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족인 여동생을 통해 자신의 사랑도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여기서 테스는 에이젤에게 “나를 위해 리자루를 돌보아 주겠어요?”(will you watch over Liza-Lu for my sake? 380, 필자 강조)라 말하는데, 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에이젤에게 리자루를 “돌봐달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에이젤의 보호 하에 맡기는 것이기도 하다. 테스가 알렉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동생들과 어머니 때문이었고, 알렉과 테스의 죽음이 테스 가족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줄지는 확실치 않지만, 테스가 죽고 나면 집안의 맏딸은 리자루가 된다. 테스가 가족으로서의 어머니의 노동과 목장 동료들의 안타까운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여동생을 에이젤에게 맡기는 것은 자신이 벗어나지 못했던 억압과 삶의 무게로부터 동생은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지도 모른다.

5.

제인과 테스는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남성을 사이에 두고 다른 여성들과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여성의 억압을 인지하고 그것의 문제를 느끼며, 때론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말이 결혼과 죽음으로 갈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인 에어는 위협적인

세상 속에 던져진 대신에 그녀 자신의 삶의 무게만을 짊어진다. 제인의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여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는 종류의 선택이다. 제인이 여러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면서 여전히 '개인화된' (individualized)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브론테 소설 속의 세계인 것이다. 반면 테스는 그렇지 못하다. 테스의 삶은 자연 전체로 확장되기도 하고, 다른 여성들 틈에 묻히기도 하는 가운데 온전한 그녀만의 것이 되지 못한다. 테스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 그녀의 사랑은 다른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녀를 괴롭힌다. 테스는 항상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만, 그녀의 삶이 언제나 그녀가 의지하는 대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하는 농촌 여성으로서 테스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제인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두 여성은 외부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그 정체성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여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들은 결코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들은 분명 "한 여성"이지만, "다른 여성들"의 존립은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이들이 개인화되어도, 아무리 이들이 자연으로 흡수되어버려도 그들이 발 딛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현실은 이미 이들의 정체성 안에 녹아있다.

참고문헌

- Blake, Kathleen. "Pure Tess: Hardy on Knowing a Woma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22.4 (1982): 689-705.
- Boumelha, Penny. *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Madison, Wis.: U of Wisconsin P, 1982.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Ed. Margaret Smith. New York: Oxford UP, 2000.
- Eagleton, Terry. *Myths of Power: A Marxist Study of the Brontë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e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79.
-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Ed. Juliet Grindle and Simon Gattrell. New York: Oxford UP, 1998.
- Matus, Jill. "'Strong family likeness': *Jane Eyre* and *The Tenant of Wildfell*

- Hall."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Brontës*. Ed. Heather Glen. New York: Cambridge P, 2002.
- Michie, Helena. "There is no Friend Like a Sister': Sisterhood as Sexual Difference." *ELH* 56.2 (1989): 401-21.
- Morgan, Rosemarie.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Routledge, 1988.
- Poovey, Mary. *Uneven Developments: The Ideological Work of Gender in Mid-Victorian England*. Chicago: of Chicago P, 1988.
- Showalter, Elaine. *A Literary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ë to Lessing*. Princeton: Princeton UP, 1977.
- Shuttleworth, Sally. *Charlotte Brontë and Victorian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P, 1996.
- Stave, Shirley A. *The Decline of the Goddess: Nature, Culture, and Women in Thomas Hardy's Fiction*. Westport, Conn.: Greenwood, 1995.

ABSTRACT

A Woman Among Women: On
How *Jane Eyre* and *Tess of the
D'Urbervilles* Represent Female
Relationships

So Ha Chung

This paper explores how Jane Eyre and Tess construct their identities as women by recognizing other women's experiences. Since Jane Eyre and Tess face their reality all by themselves, their life seems to be individualized, independent, and even exclusive. Jane Eyre declares "I care for myself" when she thinks there is no one to look after her, while Tess lives in a world where even her parents cannot understand her. Self-preservation become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m. Moreover, many critics argue Jane Eyre and Tess form their identities by opposing and competing with other women. However, deep understanding of and sympathy for other women are the crucial elements constituting their own identities. By perceiving common oppression and hardship in other women's lives, they comprehend their identity as a woman more thoroughly. Jane Eyre's own identity becomes clearer by her perception of similarity to and difference among other women. Through her life, Jane Eyre recognizes what it means to live as a woman. Tess's tragic life partly comes from her sense of responsibility for other women. Tess cannot ignore the pain or suffering of other women whose lives cannot be separated from herself. It is obvious that Jane and Tess's identities are not exclusive but responsive to other women's life as long as they share the same reality as women.

Key words: identity, female relationship, sympathy, responsibility, reality